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정읍시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들은 28일 새벽, 연지, 신태인 3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대형마트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덕담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매한 정향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추석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등을 구매했다. 특히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들은 노인·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온누리·정향누리 상품권을 활용한 장보기 운동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부안군, 국비 5억원 확보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농촌진흥청에 공모한 2021년도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8억원이 투입돼 2021~2023년 2년간 조성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역농업인들이 공동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로 부안군 먹거리종합타운이 조성될 부안을 병목리에 신축할 예정이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가공 시설, 교육장 등을 갖추고 곡류, 과채류, 염채류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반찬, 배이커리, 소스, 나물, 분말로 가공해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 레스토랑과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먹거리종합타운과 연계돼 생산·유통·가공·판매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 수 있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추석명절 최대 고비”

부안군 “코로나 청정지역 사수” 철저한 방역 활동 방역수칙 홍보·지도, 주요 관광지별 대책 마련도

권익현 부안군수가 추석명절을 코로나19 유입 차단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부안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철저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권익현 군수는 28일 열린 9월 중 연석회의에서 “부안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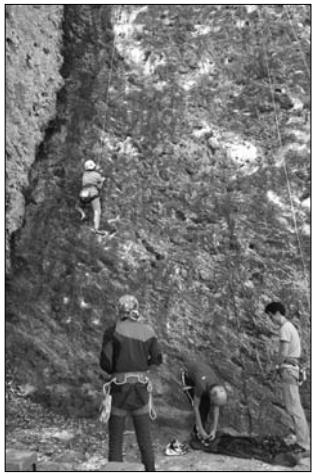
절은 코로나19 유입 차단의 최대 고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 홍보·지도 및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명절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관광지별 방역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이번 추석명절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군민들의 상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명절기간 동안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재난관리, 교통대책, 환경정비 등 종합상황실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레저스포츠 즐기며 가족간 소통을~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클라이밍 등 40~90% 할인

“집에만 있는 아들이 온종일 게임만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지만 가족 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겨나고 있다. 그로인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나타나면서 코로나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거리를 두게 한다.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레저는 소통이다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부터 한국관광공사와 위메프가 주최하는 전국민 대상 레저스포츠 기획전에 고창의 레저스포츠 상품(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노르딕 워킹)을 홍보하고 40~90% 할인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는 레저는 소통이다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판매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고창닷컴 홈페이지(<http://realgoch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높고고창 레저스포츠 체험 및 투어’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참여 가능 인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6~27일 진행된 ‘친정엄마와 함께 걷는 1박2일’ 프로젝트는 여성친화도시를 알리고 운동습지 노르딕 워킹 운전 요가를 체험하고 고창방상 시식 지역 관광 등 친정엄마와 딸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 흥덕목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향후 상황이 나아지면 학교나 기업 등 단체를 대상으로 레저스포츠 관광을 홍보하고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광승기 정읍 부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에 거주하는 박모 씨(70대)가 지난 2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읍서 70대 확진... 긴급 방역체제 돌입

추가 동선·접촉자 파악 나서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긴급 방역체제에 돌입했다. 광승기 부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에 거주하는 박모 씨(70대)가 지난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 환자를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조치했고, 확진자의 자가격리지 이탈 여부 등을 CCTV를 통해 확인 완료했다. 또 확진자의 거주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끝마치고 자가격리 중 발생한 쓰레기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광 부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핸드폰 GIS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박 씨의 추가 동선을 비롯한 접촉자 확인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읍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전 기관 사회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방역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영화관, 종교시설 등 총 489개소에 대해 매일 현장 점검에 나서며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벌(벌금 300만원)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 조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무더위쉼터와 경로당은 별도 해제 시까지 폐쇄한다. 이와 함께 추석을 맞아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묘·봉안시설에 대해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 411개소에 대해 가족예배 등 비대면 예배를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한 선별 진료소와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광승기 부시장은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철저한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특히 실내에서 밀접 접촉을 삼가는 등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에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시설 구축

해수부 공모 선정... 총 70억 들여 2023년까지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바지락 종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게 됐다. 고창군이 2021년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일환인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패류 종자 대량생산시설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억(국비 35, 도비 35) 원이 투입돼 전국 최초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고창군) 내에 ICT를 활용한 첨단 패류 종자(바지락) 대량생산

시스템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전국 바지락 생산의 77%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바지락이 대표 수산물이다. 하지만 최근 새만금 담수화와 충남지역 해적생물 증가 등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국내산 바지락 종자 수급이 불안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창군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 종자 생산기술력 확보, 해양수산부에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도 수산기술연구소와 긴밀히 협력

을 통해 금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창군에 바지락 종자 대량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중국산 바지락 종자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관내 바지락 양식 어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바지락 양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으로 전북도와 협력하여 관내 어장에 적합한 바지락 우량종자를 바지락 양식어가에 공급해 고창군이 전국 바지락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 전면 개통

정읍시는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호남선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전면 개통한다. 이번에 확장 개통된 신태인 지하차도는 1985년에 설치된 노후 지하차도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되어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지하차도 확장을 건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2017년 10월 공사를 착공해 3년여 만에 준공 개통하게 됐다. 특히, 노후 된 기존 신태인육교 철거도 병행하는 어려운 현

장 조건에서 완벽한 시공관리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에는 시비 132억원과 국가철도공단 45억원 등 총사업비 177억원이 투입됐다. 주요시설물로 지하차도 52m와 연결도로 380m 등 총연장 432m 도로를 신설하고, 2차선으로 확장 개통했다. 또한 신태인육교가 철거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를 설치함으로써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유진섭 시장은 “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